



헌책방에서 찾은 대장경

며칠 동안 불어 닦친 한파로 뽕뽕 언 거리를 진저리치며 걷는 사람들. 주머니 속 작은 온기로 견디기에는 대한민국의 겨울은 올해도 몹시 춥다. 위기를 맞은 남북관계와 어이없이 진행된 예산안 날치기 통과, 여전히 회복될 줄 모르는 민생경제와 풀길 없는 청년실업 문제. 그러나 이런 한파 속에서도 기어코 한해를 마무리 지으려는 들뜬 사람들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는 북새통을 이룬다.

글·사진=이상경·김영훈 시나리오 작가

헌책방에는 소박한 기억이 숨신다



용산역 '뿌리서점'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는 12월 중순의 어느 오후. 달경거리의 전철을 타고 도착한 용산역의 풍경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말연시를 맞아 문전성시를 이룬 상점가, 역 앞 광장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연인들, 저마다의 이유로 미끄러운 길 위를 걸어 어딘가로 향하는 인파들. 하지만 올 한해도 쉽지가 않던 그들의 발걸음은 어딘지 조금 어수선하고 정처없어 보인다. 지금 나는 어디에서 있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선 곳의 좌표를 알 수 없어 불안하고 피곤한 표정을. 잠시 숨 돌릴 여유조차 갖기 힘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리저리 떠도는 우리네 삶. 지친 마음을 위로 받고 싶은 이런 때, 우리는 종종 '그 곳'으로 간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의 긴 그림자를 꼬리처럼 달고 우리가 향한 곳은 용산역 인근의 한 헌책방이다. 역광장 오른쪽 '용사의 집' 옆으로 난 좁다란 골목으로 접어들어 응달진 긴 담벼락 아래를 지나면 골목이 끝나는 오른쪽에 낡고 오래된 헌책방이 있다. 바로 <뿌리서점>이다.

올해로 32년째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뿌리서점>은 낡은 2층 건물의 지하계단 아래로 그 이름처럼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오후 1시. 가게는 이제 막 문을 연 참이다. 입구에는 벌써부터 계통없이 쌓인 헌책들이 아무렇게나 부러져 있다.
소박한 간판 아래를 지나 책들로 빼곡한 계단을 내려가면 고래뿔속 같이 아늑한 책방이 나온다. 천장까지 들어찬 책들은 책들과 만지 낚는 형태, 구식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번잡한 시내에서 고작 5분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선 묵은해를 보내는 상투적 아쉬움도 새해를 맞는 과장된 흥분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이곳엔 편안한 무심함, 오로지 책과 사람을 위해 느리게 흐르는 시간이 있다.
두서없이 몇 권의 책을 꺼내 펼쳐보는 사이, 하나 둘 헌책방으로 손님들이 들어선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부터 중년의 사내, 책가방을 멘 학생들까지. 느긋하게 서가를 둘러보며 책을 고르는 그들의 표정엔 요즘 사람들의 얼굴에선 좀체 보기 힘

든 한가로움이 묻어났다. 가뜩이나 비좁은 통로가 책에 흠뻑 빠진 손님들로 건너갈 수 없게 되면 별 수 없다. 우리도 그 자리에 불박여 아무 책이나 한 권 뽑아들고, 읽으면 된다. 다행히 헌책방 여기저기에는 눈길을 끄는 책들이 몇 권씩은 곳곳에 마려 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 책장 뒤편으로 손을 뻗는다. 경전이다. 오랜시간 누군가에게 여유를 주고, 지친 마음을 달랠 것. 귀퉁이가 닳았지만 표지는 아직도 뽀뽀했다. 훑을 먼지를 털고 누렇게 바랜 경전을 조심스레 넘긴다. 버석거리는 경전 위에 꼭꼭 눌린 자국과 함께 깨알같이 인쇄된 활자들이 잠들어 있다. 사람의 눈길이 닿자마자 부르르 기지개를 켜며 긴 잠에서 깨어나는 법구들.
헌책방에선 새삼스러울 것 없는 구절,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에도 색다른 감회가 더해진다. 커췌이 쌓인 먼지처럼 오랜 세월이 덧씌워졌을 뿐, 현재와 닮아도 너무 닮은 삶의 모습들을 경전 안에서 발견한다. 문맥 없이 흔들거리는 인생이라고 진력할 것 없다. 살아가며 느끼는

모든 한희와 환멸 또한 인간의 보편 감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부처님은 예전부터 말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미 걸었던 길을 뒤따라 가보는 것처럼 헌책을 읽는다. 큼직하게 그려진 어린아이의 낙서가, 지금은 사라져 버렸을 누군가의 전화번호가, 책을 산 날의 단상을 적은 메모가 남겨진 헌책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갖고 여기까지 흘러왔다. 먼젓번 주인과의 시절인연을 추억으로 간직한 채 지금은 말없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새 주인을 기다리는 경전과 책들을 어루만져 본다. 인터넷 서점의 편리함도 대형 서점의 화려함도 없지만 사람과 책의 소중한 기억, 소박한 우리의 역사를 담아 파는 곳이 헌책방이 아닐까.
책방을 둘러본 지 한 시간 남짓. 저도 모르는 새에 손에는 너댓 권의 책이 들려있다. 다른 손엔 따뜻한 커피 한 잔. 유달리 인경 많은 주인 아저씨는 책방에 들르는 손님들 모두에게 손수 커피를 타주신다. 군제대 후, 그저 책이 좋아 헌책방을 시작하게 됐다는 아저씨는 헌책이

짧은 헌책방 유람을 마치고 골목을 빠져나온다. 손에는 한 권의 <법구경>이 들려있다. 칼바람이 살을 에고 날이 저물어 그림자는 더 길어졌다. 시내 풍경은 여전히 번잡스러웠지만 이제 우리는 길을 잃거나 갈 곳을 몰라 하지 않는다. 든든하게 우리를 지탱해줄 몇 권의 헌책과 경전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뿌리서점 (02)797-4459



헌책방을 찾은 어른신이 보물찾기를 하듯 책을 고르고 있다.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公益 法人 大韓佛敎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약사 추모관 운영 중)
 회 주 화 담
 주 지 화 담
 부 주 지 대 후
 신도 일동
 財團 法人 華嚴僧伽獎學財團
 公益 法人 大韓佛敎華嚴宗獎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 위 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
 TEL 02)730-0798 / FAX 730-0799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
 TEL 02)3411-8103-4 FAX 02)3411-8108
 www.kbiguni.org

태아영가참회도량
 대한불교 일승종 약천사
 주지 자운
 신도 일동
 ■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TEL 02)3391-8523
 H·P 011-9002-8523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도량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주지 마일운
 총무 조고담
 교무 박연허
 재무 박처명
 사무장 류인숙
 종무소 함규진 이진선
 ■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TEL 02)392-3007~8
 FAX 02)393-9450
 www.bongw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노고산 흥국사
 주지 대오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TEL 02)381-7970 / FAX 02)381-7329
 홈페이지 www.heungguksa.or.kr